

종합

李 세 군히기 鄭 추격 ‘고난의 행군’

대선 D-4 주말·휴일 막판 유세 총력전

鄭 전남·제주 昌 충청...전국 돌며 유세

17대 대선 이전 마지막 주말과 휴일을 맞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지방유세를 마감한 채 민생경제 행보에 주력하는 등 여유를 보인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전국을 돌며 유세 강행군을 벌이는 등 추격전에 나섰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14일 서울을 출발해 대전, 전북, 전남 장성을 거쳐 제주도까지 ‘서부벨트’를 따라 국도를 종단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이날 유세에는 손학규·김금실 공동선대위원장이 함께 했으며 추미애 선대위원장과 김홍업 의원 등과 함께 무안과 해남 등지에서 정 후보와 재·보선 후보 지원유세를 펼쳤다.

정 후보는 유세에서 “바닥 민심이 요동치

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흠과 상처, 거짓이 너무 많아서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며 “남은 닷새는 시대양심을 깨우고 진실을 바로 세우기에 충분하고도 너무나 긴 시간이다. 기적은 일어난다”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는 지난 13일로 지방유세를 마감한 채 14일에는 서울 여의도 대우증권 본사를 찾아 경제공약을 발표하는 등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했다.

그는 이날 ▲금융 관련 규제를 현행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금지’로 전환 ▲금산 분리 완화 ▲고수익채권(정크본드) 시장 활성화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등을 공약했다.

한나라당 광주시당은 텔레프론트 정홍재, 개그

맨 강남영씨 등 연예인유세단을 앞세워 광주 동구청 앞, 상무지구, 말바우시장 등지에서 거리유세를 펼치며 이명박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전남도당은 전석홍 선대위원장과 문일섭 전 국방부 차관 등이 연설원으로 나서 무안, 강진지역 5일장과 버스터미널에서 유세를 벌였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14일 충남 천안, 조치원, 옥천과 대전, 경북 안동, 영천, 포항을 1~2시간 간격으로 방문, 부동층 잡기에 몰두했다. 그는 유세에서 “한나라당과 이 후보의 애매모호한 대책은 지난 5년간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게 한 핵발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북한에 지원 하되 받을 것은 받아내 평화정착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진재 대선 후보는 광주 양동시장과 말바우 시장, 부산 등지의 유세에서 후보 단일화 무산 책임을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돌려 신당에 대한 공세를 계속, 지지층 이탈

방지에 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 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동영 후보의 연합정부 제의에 대해 “같은 뿌리인데 무슨 연정이나, 정신나간 소리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실 당 대선을 포기하는 듯한 박상천 민주당 대표의 전남 발언과 관련, “최후 순간까지 포기가 어디 있느냐”며 “그런 뜻이 아닐 것”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광주지역 노동자 5천95명은 이날 민주노동당 광주본부에서 권영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15일에도 광주지역 노동자 400여명의 입당 기자회견을 갖는다.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도 이날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말바우시장 등에서 유세를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공화국 건설로 광주정신을 완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설

高 3 논술 사설학원에 맡기는 공교육

광주시내 일부 고교에서 고3 논술 지도를 사설학원에 맡기고 있다고 한다. 사교육이 학교 현장까지 침투한 우리의 공교육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

상당수 광주시내 고교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1~2개월씩 사설학원 논술 강사를 초빙해 고3 수험생에게 특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료는 학생 1인당 5만원 안팎이라고 한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학습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인 ‘방과 후 학교’ 형태로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논술 전문교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계속 시행하겠다는 학교도 있다.

하지만, 사교육이 논술 교육을 더 잘 맡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릇된 선입견이다.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교육 시스템을 갖춘다면 우수한 교사가 많이 보

유한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더 신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도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믿지 못하고 많은 돈을 들여 사설학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다. 사교육비 때문에 학부모들은 허리가 휠 정도다.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모습인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현장에서마저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은 공교육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우리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공교육 강화밖에 없다. 교사의 질을 높이고 학교간 경쟁을 허락해 사교육 없이도 학생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고 사회가 건강해진다.

대선 D-4, 지지후보 냉철히 선택하자

제17대 대통령선거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부재자투표는 어제까지 마감됐다.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최고 지도자를 뽑는 ‘국민의 선택’이 사실상 시작된 것이다.

이번 대선은 역대 선거와는 판이한 양상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독주체제가 지속되면서 보수진영의 지지율이 60%대를 넘나들고 있다. 범여권은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채 지리멸렬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완주하는 후보도 사상 최대인 10명에 달한다.

호남의 민심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 호남 유권자들은 지난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의 대선에서 정권 창출의 주역이었지만 이번에는 무력감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재야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막판까지 범여권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대선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으로 당선 선거관리위원회의 발동에 불이 떨어졌다. 중앙선거위의 최근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67%에 불과했다. 이 추세라면 역대 대선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선에 긴장감이 없다고 해도 투표 자체를 포기해선 안 된다. 정책 대결과 인물 검증이 실종된 선거일수록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후보가 실망스럽고 정치권에 분노가 치밀더라도 인물과 정책,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판단의 기준은 세울 수 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길은 사실상 선거밖에 없다. 투표는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이자 신성한 의무다. 국민 모두가 이번 주말과 휴일, 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히 점검한 뒤 오는 19일 투표장으로 향하길 기대한다.

신당-한나라 유세장 충돌 공방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최근 순천 지역 대선 유세과정에서 자리 다툼을 하다 싸움이 벌어진 것과 관련,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성명 공방을 벌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후보 전남선대위는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 낮 순천 남부시장 모터리에서 신당 전남유세본부장 박모씨가 한나라당 유세차량에 치어 크게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전날부터 유세 차량의 거점을 확보해 유세를 벌이고 있었는데 한나라당 당원 50여명이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유세차량이 후진, 박 본부장을 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완전 날조”라고 반박 성명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차체 비디오 분석결과 박씨가 유세차에 치이고 목살을 잡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박씨가 일부러 도로에 누워 행패를 부렸다”며 “당 라인선거대책본부의 진상조사를 거쳐 박씨를 ‘자해공갈’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사실확인도 없이 신당측에 이를 유리하게 보도한 일부 언론사도 함께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양당 관계자들의 고소고발이 접수될 경우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싸움 국회... BBK 특검· 검사 탄핵소추안 공방전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중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기톱으로 문을 연 뒤 국회 경위들의 도움으로 입당한 대통합신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3일부터 BBK 특검 및 탄핵소추안 표결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었다.

선거법 위반 고발 잇따라

17대 대선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불법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위법 행위가 선거권에 잇따라 적발됐다.

신안군 선관위는 14일 지난날 13일 광주 남구 구동체육관에서 열린 모 정당 광주·전남선대위 발대식에 관공버스를 임대해 당원이 아닌 주민들을 참석케 하고 이들에게 68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한 A씨와 B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의뢰했다.

보성군 선관위도 지난 4일 광주 남구 광주공원에서 열린 대선 후보 공개 연설장에 마을 주민 32명을 동원,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C씨와 D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후식기자 who@

임의장 ‘이명박 특검법’ 17일 직권상정

신당·한나라에 통보... 또 한차례 충돌 예고

임의장 국회의장은 14일 대통합민주신당이 요구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오는 17일 낮 12시까지 심사를 마칠 것을 각 당에 요청했다.

임 의장은 ‘이명박 특검법’과 BBK 수사감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이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 양상을 보이자 이 같은 입장을 양당에 공식 통보했다고 정경환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밝혔다.

임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일인 오는 17일 낮 12시까지 소관 상임위원 법사위에서 특검법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직권상정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 및 신당 의원들과의 충돌 사태는 일단락됐으나, 17일 심사기일 종료와 함께 열린 본회의에서 또 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대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BBK 사건 수사감사 탄핵소추안 및 BBK 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첨예한 대치를 거듭했다.

신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과 함께 BBK 특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전남 오후부터 본회의장을 점거한채 ‘원천봉쇄’ 작전에 나서면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신당은 의원들은 오후 4시30분께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기술자들을 동원해 출입문을 전기톱으로 절단하고 본회의장에 진입했으나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했다.

/임필목기자 tuim@kwangju.co.kr

‘5·18 관련자’ 이명박 후보 지지 논란

일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지지를 선한 것에 대해 5·18단체와 노동계 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18 단체들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5·18 관련 단체들은 이번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중 다수가 5·18민주화운동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며 “거짓으로 유공자라고 밝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한 5·18

관련자들은 “5·18 관련자들로 인정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좋은 취지로 발표한 것인데 일이 이렇게 될 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5·18 관련 인사와 부상자, 광주·전남지역 교수 200여명은 13일 서울 한나라당 당사에서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국가경쟁력을 부활시킬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으나 성명 발표 뒤 이들 중 일부가 5·18 관련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몇몇은 지지선언 사실조차 모른다고 밝혀 논란이 빚어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신안 ‘가거도 등대’ 등 3곳 문화재로 등록

신안 ‘가거도 등대’와 해남 옛 ‘목포구 등대’, 전북 군산 ‘어청도 등대’ 등 서해안의 대표적인 등대 세 곳이 문화재로 등록, 보존된다.

문화재청은 14일 100여년 가까이 된 이들 서해안 등대 세 곳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고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서남단의 섬에 위치한 신안의 ‘가거도 등대’는 지난 1907년에 축조돼 1935년 유인등대로 증축됐다. 대한제국시기 전형적인 모습의 등대에서 잔면 출입구와 원뿔꼴의 등롱, 그리고 등탑 내부의 직선형 계단으로 변화된 모습을 통해 등대건축의 변천사를 보여준다.

1908년에 축조돼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해남의 구 ‘목포구 등대’는 대한제국시기의 대표적인 등대로 목포와 서해안의 뱃사람과 섬사람들에게는 목지의 관문인 목포구(木浦口)의 이정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등대의 전형이 되는 등대로서 전체적인 비례가 조화돼 외형이 아름다우며 변형이 근대 건축기술이 집약돼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1903년 인현 팔미도에 최초의 근대식 등대가 세워진 이래 현재 41개소의 유인등대를 비롯한 70여개의 등대가 세워져 있으나 최근 등대 중·개축 추세로 오래된 등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종두

결국, 他意半이 문제겠다

정부-노조 ‘공무원 정년연장’ 합의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현재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 노사는 1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측 대표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노조측 대표인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수립 이후 첫 노사 공동교섭을 벌여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공무원 정년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합의했다.

다만 이 합의는 국회에서 공무원 정년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최종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이원화 돼 있는 현행 정년을 6급씩 일원화되 우선적으로 6급 이하 정년을 늘리는 방안 등을 놓고 복수안을 마련, 노사가 추후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또 양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보수 인상폭 노사교섭된 결정’ 문제에 대해 “정부는 2009년 공무

원 보수수준과 관련, 내년 상반기중 노조와 논의해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한다”는 쪽으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 이용 항공사 지원 조례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전남도의회 건설소방상임위원회(위원장 송대수)는 지난 3일 전남도가 제출했다가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됐던 ‘무안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안’을 일부 수정, 13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오는 21일 처리될 이번 조례안은 무안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자에게 국제·국내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승금 일부와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를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영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浩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대외)FAX 222-4918	(F A X 227-0118)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교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5
		시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